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택해야 할까? 가나안 족속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라고 무조건 선택할 수는 없었다. 종이 생각한 기준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었다. 주인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다. 텐트를 치고 양떼를 몰아 떠도는 유목민이었다. 자신도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다른 나그네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텐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기만 해도 달려 나가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평안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간청하는 사람이었다. 주인의 성품을 잘 아는 종은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로 결정했다.

긴 여행 끝에 종이 도착한 곳은 나홀의 성이었다. 성 밖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었고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시간이었다. 종은 물을 달라는 부탁에 자신은 물론이고 낙타들이 마실 물도 준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고 기도했다. 늙은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달라는데 그것을 마다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친절이 아니다. 광야를 지나온 낙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 한 두 마리도 아닌 열 마리다. 여인이 하기에는 중노동이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인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거다. 그러나 종은 기도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 창세기 24:15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을 길으러 나아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늙은 종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부탁한다. 소녀의 대답은 이랬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 창세기 24:18-20

소녀는 종이 기도한 그대로 친절을 베풀었다. 늙은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낙타들이 마실 물을 길기 위해 다시 우물로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종은 소녀의 행동을 묵묵히 주목하여 지켜보았다. 그리고 상당한 선물을 주며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아버지 집에 나그네인 자신이 머물 수 있을지 묻는다.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소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밝힌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라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 창세기 24:26-27

먼 길을 여행해서 도착한 성에는 아브라함의 친족, 그것도 친동생의 손녀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종이 기도한 '말도 안되는 무리한 친절'을 기꺼이 베푸는 여인이었다. 종의 발걸음 보다 앞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였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종이 한 일은 순종과 기도, 그리고 경배와 찬송이었다.